

시사원정대 NIE 2023-2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시사네컷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최신 이슈의 내용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알아봅니다.

주요 장면과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례를 현실감 있게 이해해 봅니다.

3)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필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5)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2월호 2주 (90분)		
학습 목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탐구해 본다. '팝업스토어'의 뜻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문화를 살펴본다.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소개한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알아본다.		
활동 초점	-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생각해 보고, 따뜻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알아 본다. - 기업이 '팝업스토어'를 여는 배경을 이해하고 팝업스토어로 인해 만들어진 문화를 살펴본다. - 올해 CES에서 환경을 위해 내놓은 기술을 알아보고 더 필요한 미래 기술을 상상해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8
펼치기	- 44~46 맞춤사설 - 따뜻한 관계가 행복 결정	- 행복 - 인간관계	25
	- 64~67 키워드가 머니 - 팝업스토어가 뭐니?	- 팝업스토어의 개념과 문화	25
	- 82~85 잇(IT) 뉴스 - 올해 CES 트렌드는 친환경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 친환경	25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자신이 팝업스토어를 연다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싶은지 이야기하고 열고 싶은 분위기의 팝업스토어를 그림으로 그려 본다.	7

[20 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2월호 2주		
학습 목표	'팝업스토어'의 뜻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문화를 살펴본다.		
활동 초점	- 기업이 '팝업스토어'를 여는 배경을 이해하고 팝업스토어로 인해 만들어진 문화를 살펴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64~67 키워드가 머니 - 팝업스토어가 뭐니?	- 팝업스토어의 개념과 문화	15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 자신이 팝업스토어를 연다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싶은지 이야기하고 열고 싶은 분위기의 팝업스토어를 그림으로 그려 본다.	2

맞춤사설

따뜻한 관계가 행복 결정

<어휘 UP>

학벌: 출신 학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파벌.

방대하다: 규모나 양이 매우 크거나 많다.

저하: 정도, 수준, 능률 등이 떨어져 낮아짐.

번듯하다: 형편이나 위세 등이 버젓하고 당당하다.

소소하다: 작고 대수롭지 않다.

<발문>

1. 자신을 소소하게 행복하게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3가지 이상 적고 다른 친구들과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2. 남과 따뜻한 관계를 맺기 위해 내가 간단하게 노력할 수 있는 점을 3가지 이상 적고 실천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한국인, 서울대 꿈꾼다지만... 하버드는 행복과 관련 없었다”

미국 하버드대 재학생과 보스턴 빈민가 청년들 중 누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까? 1938년 이 질문을 던졌던 하버드대 연구팀은 이후 현재까지 85년 동안 이들의 삶을 추적한 끝에 답을 얻었다.

“우리의 방대한 과학적 연구의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했다. 인생에 있어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이다.”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대 의대 교수(72·사진)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행복을 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부모,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버드대 의대 부속

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월딩어 교수는 미국 역사상 인간의 삶에 대한 최장기 연구 프로젝트인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의 4번째 책임자다. 2002년부터 21년째 연구를 이끌고 있다.

월딩어 교수는 “놀라운 것은 ‘의지할 만한 관계’가 행복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라며 “50대일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80대에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50대 때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70, 80대 때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극성 등 성격적 기질도 30대 땀 성공에 영향을 미쳤지만 노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월딩어 교수는 “외로움과 고립은 술과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 원치 않는 고립에 빠진 이들은 중년에 신체 건강이 급격히 저하되고 뇌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교육열이 강하고, 성취욕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수준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자녀에게 의사가 되라는 식으로 무엇이 되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85년 동안 축적된 연구 데이터가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그러면서 “아동기 가족과의 관계는 80대까지 생애 전반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2023년 새해는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까지...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울증 진단을 받는 2030 청년들의 수가 최근 4년 동안 50% 급증했다. 특히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자부해 온 한국인은 왜 행복에서 멀어지고, 미래를 비관하게 된 것일까. 85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인생 연구’의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대 의대 교수로부터 과학적 연구 결과로 나타난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지 들어봤다.

기자는 '하버드대 졸업생이 저소득 가정 출신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다'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월딩어 교수의 답은 한결 같았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대학에 대한) 확고한 서열이 있으며, 모두가 서울대에 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학벌은 행복과 관련이 없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연구 결과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해서 이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돈과 명예도 인생의 종착점인 노년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복의 열쇠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임이 과학적으로 여러 차례 증명됐다"고도 강조했다.

월딩어 교수는 한국인들에게 건네고 싶은 조언을 묻자 "새해에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월딩어 교수와의 일문일답.

—인간관계가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50대에 인간관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80대에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외로움과 고립은 술이나 담배만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80대 부부의 삶을 연구해 보니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고통이 덜하고,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반대의 경우는 자신이 더 아프다고 느꼈다."

—연구 대상자인 하버드대 출신들은 대부분 부유한 가정환경이나 똑똑한 머리를 타고났다.

"교육 수준은 행복한 삶과 관련이 없는 요인이었다. 다만 교육은 수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하버드대 출신이 저소득 가정 출신보다 수명이 더 길었는데, 그들이 교육 수준 덕분에 건강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보

를 바탕으로 술이나 약물을 남용하지 않고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란 어떤 것인가.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다. 또 상대방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녀에게 의사, 변호사 등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다. 연구 결과 아동기 가족과의 관계는 70, 80대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좋은 관계는 주로 결혼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다.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구들, 직장 동료 등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관계든 의미가 있다. 또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소셜미디어도 이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된다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타인의 아름다운 사진만 본다면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 사진들은 삶의 작은 파편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부와 명예를 얻고 성공하기 위해 애쓴다.

"물론 기본적으로 살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 그 이상부터는 돈이 더 많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연간 수입 7만5000달러(약 9500만 원) 이상부터 돈과 행복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만9000달러다.)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젊은이들도 기후변화, 양극화, 정치적 혼란, 전쟁 속에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젊은층은 여기에 (북한 등) 전쟁의 위협을 더욱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버드 '인생 연구'를 계기로 자신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빠서 잊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좀 더 자주 모이도록 한다. 좋은 관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가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하버드생-빈민청년 724명, 그들 자녀까지 85년간 조사...월딩어 교수, 20년째 이끌어

세계 최장기 '인생' 연구로 꼽히는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는 대공황이 미국 사회를 덮친 1938년 시작됐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좋은 인생의 비결'을 과학적으로 추적해 보자는 취지로 당시 만 19세 무렵이던 하버드대 2학년 재학생 268명을 모집했다. 그중엔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도 있었다. 연구팀은 사회·경제적 대조군으로 1940년대 초 보스턴 시내 저소득 가정 10대 후반 456명을 추가해 총 724명의 남성이 80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을 추적해 왔다.

연구팀은 2년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5년 단위로 신체 건강을 측정했다. 5~10년마다 심층면접도 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뇌 인지능력 검사, 유전자 연구도 병행됐다. 현재는 베이비붐 세대인 이들의 자녀 1300여 명을 연구하며 부모와의 관계 등 아동기가 중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1951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나 1978년 하버드대 의대를 졸업한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학자, 선불교 승려로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를 20여 년째 이끌고 있다. 그의 2015년 테드(TED) 강연은 현재 44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해 역대 톱10 강연에 꼽힌다. 이달 초 최근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굿 라이프'를 출간할 예정이다. 한국에는 올해 가을 번역돼 나온다.

키워드가 머니

팝업스토어가 뭐니?

<어휘 UP>

팝업스토어: 인터넷에서 잠시 떴다가 사라지는 '팝업창'처럼 특정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에만 짧게 판매하고 사라지는 매장.

우후죽순: 비가 온 뒤에 여기저기 솟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한때에 많이 생겨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매출액: 물건을 내다 팔아서 생긴 총액.

임대료: 남에게 물건이나 건물 따위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

저렴하다: 물건 값이 싸다.

<발문>

1. 팝업스토어의 역할은 무엇이며, 소비자는 팝업스토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2. 팝업스토어를 열 때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발표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팝업스토어' 전성시대... 백화점-마트 중심에 딱하니 자리잡아

2012년 론칭한 남성 가방 브랜드 '몬스터리퍼블릭'은 한때 5곳이던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내 매장을 2년전 정리했다. 그럼에도 매출의 10~15%는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나온다. 비결은 임시 매장인 '팝업스토어'다. 이 업체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울 도심 오피스 빌딩이나 쇼핑몰 등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는 100곳이 넘는다. 업체 관계자는 "팝업스토어는 고정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 보니 기존 정규 매장 대비 수익이 30% 이상 더 많다"며 "당분간 오프라인 판매는 팝업스토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오프라인 상권을 살릴 대안으

로 팝업스토어가 주목받고 있다. 2010년대 팝업스토어가 국내에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신제품 출시, 신규 마케팅, 할인 판매 같은 이벤트 성격이 컸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으로 입지가 좋은 매장도 수익을 담보하기 어려워진 데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상권 불황이 깊어지면서 아예 팝업스토어를 정규 매장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브랜드들이 팝업스토어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다. 팝업스토어에 입점하려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9~30%)을 수수료로 내면 된다. 보증금이나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 정규 매장 입점 수수료보다 싸다. 업계에서는 출점 비용이 정규 매장보다 80%가량 저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 시기와 기간,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주얼리 브랜드는 크리스마스나 밸런타인데이, 골프웨어 브랜드는 골프 시즌 직전처럼 성수기에는 팝업스토어를 늘려 매출을 극대화하고 비수기에는 매장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실인 상가, 백화점, 대형마트 자투리 공간에 주로 입점하던 팝업스토어는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의 정규 매장 자리까지 꿰차고 있다. 10일 팝업스토어 중개 플랫폼 업체 '스위트스팟'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로부터 들어온 팝업스토어 입점 요청은 50건이다. 이 중 28건은 정규 매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정수 스위트스팟 대표는 "그동안 오피스 빌딩 로비, 행사장과 같은 유휴공간을 주로 중개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정규 매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문의가 급증했다"고 귀띔했다.

아예 이 업체에 장기간 공간을 통째로 빌려주고 팝업스토어 운영을 맡기는 사례도 있다. 이달 말 개장하는 이마트 월계점 1층 매장 입구 팝업스토어는 앞으로 1년간 스위트스팟이 직접 기획,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 복합쇼핑몰인 '엘리웨이 광고',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단지 상가 내 팝업스토어 운영도 스위트스팟이 맡았다.

유통업계에서는 앞으로 '팝업스토어 이코노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팝업스토어 이코노미는 주요 상권이 정규 매장에서 팝업스토어로 재편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2, 3년 전 미국 영국에서 등장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업체 'CBRE코리아' 김용우 이사는 "온라인몰과 함께 플래그십 매장, 일반 매장, 팝업스토어 까지 다양한 유통채널을 보유한 브랜드들은 코로나19 피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며 "달라진 소비 패턴과 불황에 대비하려면 유연한 판매 전략이 필수적 인데 오프라인에서는 팝업스토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0-05-11]

잇(IT) 뉴스

올해 CES 트렌드는 친환경

<어휘 UP>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

첨단: 시대 사조, 학문, 유행 따위의 맨 앞장.

첨단 산업: 항공기, 우주 개발, 전자, 원자력, 컴퓨터 등 기술 수준이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

태양전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장치.

경각심: 주의 깊게 살피며 조심하는 마음.

<발문>

1.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편리한 기능이나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술을 골라서 말해 보자.
2. '자원 아끼기' '재활용' '천연 에너지 사용' 등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혁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첨단 기기나 기술을 생각하고 그 내용과 그림을 기록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CES 2023]최첨단 기술 향연 폐막..."韓 기업들 빛났다"(종합)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5일(현지시간) 개막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3'이 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정상 개최된 CES 2023은 174개국에서 3200여개 기업들이 참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CES 2020' 참가 기업 수가 4400개에 육박한 것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을 많이 회복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현장 전시를 하지 않았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23곳이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관람객 규모도 4만5000명이었던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최소 10만명 이상이 전시장을 찾았다.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 SK, 롯데, 현대모비스, HD현대, 바디프렌드, 서울반도체 등 55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가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삼성은 최대 규모의 전시관을 꾸렸고, LG는 전시관 입구 초대형 올레드 조형물로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는 "소니, 파나소닉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이번 CES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업체"로 꼽았다.

○ 스마트홈·모빌리티 등 신기술 각축

올해 CES에서 주요 기업들은 스마트홈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 'LG 씽큐'를 대표 아이템으로 선보였다. 양사는 스마트홈 플랫폼 연동 협의체 HCA(Home Connectivity Alliance)에 참여, 공개 시연까지 했다.

지난해 CES에서 탄생한 HCA는 출범 1년 만에 타사 공기청정기·냉장고·공조 시스템 등을 각기 다른 브랜드 앱으로 제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앱으로 LG전자 공기청정기인 에어로타워를 가동하고 제어하는 등 다른 회사의 스마트 기기까지 제어했다. 단적으로 LG 워시타워의 남은 세탁시간을 다른 브랜드 앱에서 확인하거나 GE 오븐을 삼성 스마트싱스 앱으로 예약했다.

HCA는 삼성·LG전자를 비롯해 GE, 하이얼, 일렉트로룩스, 아르첼릭, 트레인, 리디지오, 베스텔, 등 글로벌 가전업체들과 공조 전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 목적기반차량(PBV) 등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도 총 집결했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하만은 이번 CES에서 미래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였다. 더 몰

입감 있고, 더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사운드 경험을 제공해 운전자의 기분 좋은 주행을 돕는 카오디오 솔루션인 '레디 튠'과 '레디 온디맨드' 등을 선보였다.

SK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가상 체험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전시관에 설치된 UAM 항공기 형태의 가상 체험 시뮬레이터를 체험하기 위해 SK통합전시관 주변에는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LG이노텍은 첨단 카메라모듈 등 자율주행 시대를 책임질 다양한 전장 부품들을 전시했다. LG디스플레이도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을 위한 초대형·슬라이더블·투명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공개했다.

지난해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소니는 혼다와 합작한 첫 전기차 '아펠라'(Afeela)를 첫 전시했다. 구글은 차량 내 운용체계(OS) 역할을 하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직접 체험하는 차량을 전시해 인기를 끌었다.

○ 삼성, 최대 규모 전시관...고객 '초연결' 강조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참가 업체 중 가장 넓은 3368㎡(1019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지속가능', '스마트싱스', '파트너십'을 키워드로 다양한 전시존도 구성했다.

올해는 단순 제품 전시가 아니라 ▲지속가능 ▲홈 시큐리티 ▲패밀리 케어 ▲헬스&웰니스▲엔터테인먼트▲스마트 워크 등 고객 경험 위주의 전시로 구성한 것도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는 전시관 전체를 2023년형 Neo QLED 8K부터 패밀리허브 신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스포크 가전을 비롯해 갤럭시 Z 폴드4·플립4, 갤럭시 워치 등 모바일 기기, 스마트 모니터 등으로 꾸몄다.

특히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공정 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대용량 통합 온실가스 처리시설(RCS-Regenerative Catalytic System)'도 처음 소개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RCS를

활용하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파타고니아와 협업해 개발한 미세 플라스틱 저감 세탁기 등 친환경 제품과 미래형 친환경 주거형태인 '넷 제로 홈'과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기기들의 소모 전력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AI 에너지 모드' 등 에너지 절감 솔루션도 대거 전시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신기술이 없었다는 지적에 "퍼블릭(공개) 부스에서는 제품보다는 제품끼리 연결됐을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알려주려 했다"며 "프라이빗 부스에서는 거래선 중심으로 신제품 중심으로 보여주려 했다"고 밝혔다.

○ LG, 올레드TV 10주년...거대 조형물로 압도

LG전자는 올해 CES 2023에서 '고객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의미인 브랜드 슬로건 '라이프즈 굿'(Life's Good)을 주제로 2044㎡ 규모의 전시관을 운영했다.

특히 전시관 입구에 설치된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 260장을 이어 붙인 초대형 조형물 '올레드 지평선(OLED Horizon)'은 큰 반향을 끌었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별들의 궤적을 담은 밤하늘, 사하라 사막, 세렝게티 국립공원, 7개 폭포로 이루어진 딘안디 폭포, 북극 빙하, 거대 파도로 유명한 나자레 해변, 세계에서 가장 큰 레인트리, 동굴 안에서 기이한 빛의 예술을 보여주는 안텔로프 캐년 등을 관람객들이 실제 걷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세계 최초 무선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M'를 필두로 세계 최대 97형 LG 올레드 TV, 88형 LG 시그니처 올레드 8K 등 다양한 올레드 TV를 전시했다.

개인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춘 스크린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 제프 스

테이블과 협업한 크리에이터 룸, 실험적인 제품이 전시된 LG 랩스(Labs)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연결'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고객 경험"이라며 "어떤 경험을 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SK롯데HD현대 등도 주목...K-스타트업도 주목

SK는 이번 CES에서 40여개 친환경 탄소감축 신기술과 제품을 일제히 선보였다. SK(주) 등 8개 계열사는 '행동(Together in Action :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을 주제로 그룹 통합전시관을 공동 운영했다.

특히 도심항공교통(UAM)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가상현실(VR) 기기를 쓰고 4분 가량 체험하는 '플라이카'가 인기를 끌었다. SK전시관 주변에는 입장을 위해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CES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번이 첫 CES 방문이었던 최 회장은 "CES에 처음 와서 보니 듣던 대로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여러 회사들의 새로운 기술과 콘셉트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롯데는 롯데정보통신과 롯데헬스케어를 내세워 CES에 출격했다. 롯데정보통신은 CES에서 초실감 메타버스를 구현했다. 30여 명이 동시 다중접속 가능한 메타버스 '허브월드'를 구성해 국적이 모두 다른 참관객들이 웨어러블 기기를 쓰고 각자 쇼핑, 콘서트 등을 즐기는 장관을 연출했다.

롯데헬스케어도 체험형 전시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건강 유형과 운동 습관을 분석한 뒤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캐주얼'에 흥미를 느낀 외국인들이 긴 줄을 서서 체험을 기다리기도 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관들도 반응이 뜨거웠다. 파노라마 홀로그램 제품과 인공지능(AI)

예술가 로봇을 공개한 엑스오비스의 전시관은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붐볐다.

AI 예술가 로봇인 '스케쳐X' 인기도 뜨거웠다. 스케쳐X는 사람과 대화를 하며 앞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초상화를 그려줬다. 스케쳐X의 작품을 받아 든 프랑스 엑셀레시아 관계자는 "이렇게 빨리 인공지능으로 내 얼굴을 인식해 그린다는 것이 신기하다"며 "이 초상화는 이번 CES의 확실한 기념품"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2023-01-08]